

## 고마미야 신사

미야자키현은 말 사육이 활발합니다. 변방이었던 이 지역의 말을 조정에서 귀히 여겼다는 것에서 시작된 말 사육의 역사는 적어도 나라 시대(710-794)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 고마미야 신사입니다. 고마미야란 ‘말의 신사’를 의미하며 경내에는 많은 석상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안선이었던 신사의 부지는 태곳적부터 성지로서 신앙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의 신체를 모시는 건물인 샤덴 뒤편에 있는 절벽을 신의 거처로 숭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선이 뒤로 밀려나면서 주변 토지는 농경이나 방목에 이용되었고, 고마미야 신사는 농경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집락촌의 신앙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부)의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이 신앙과 비호의 상징으로서 매년 말을 봉납하였고 이로 인해 고마미야는 보호받아 왔습니다. 지금의 고마미야 신사는 신화 속 초대 천황이었던 진무 천황을 모시고 있습니다. 진무 천황은 이곳에서 유소년기를 보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강조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지 천황(1852-1912)이 중심이 된 정부는 신도(神道)를 국교로 제도화하면서 황실의 기원에 관한 토착 신화와 전설에 관한 장소를 숭배하고 유지할 것을 장려했습니다.